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포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517-7651~5 팩스/512-1225

다가온 김치(KIMCHI) 신학 세미나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도전!

러시아 교회 지도자 32명 초청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제5차 킴치신학세미나가 25일로 임박했다. 타 문화권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적 각성과 신학 훈련의 기회를 주고자 우리교회 부설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을 통해 해마다 개최하는 킴치세미나에 올해는 러시아에서 온 32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6월 3일까지 계속될 이번 세미나 기간동안 이들은 새벽기도회와 기도원 방문을 통해 영성훈련을 하며 성경적 교회성장원리, 소그룹 운동, 한국교회약사, 한국교회 성장의 배경, 전도와 사회적 관심, 신학교육 등에 관한 강의와 토론으로 신학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오후에는 신학교, 기독교 대학, 성서교회 등을 방문하는 현장교육이 있으며 이번 배운 신학적 지식을 토대로 자국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게 된다.

지역 복음화 또는 세계복음화의 핵심이 되는 목회자의 갱신을 통해

복음 확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려는 킴치세미나의 목적이 잘 성취되도록 온 교회가 기도로 동역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랜 억압과 수난 속에서 지켜온 그들의 신앙을 배워 우리도 영적으로 갱신되는 기회를 가지며 한국 내 선교비전의 시각을 넓히고 우리와 다른 그들의 다양한 선교 전략을 배우는 계기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교회는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러시아 복음화와 김치세미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지기로 했다.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제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다음 주 월요일(5월 30일)종강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을 통하여 「강해설교와 영적갱신」이라는 주제 아래 계속되는 제5학기 목회자세미나가 다음 주 월요일(30일)에 10주의 과정을 마치고 종강한다. 지난 3월에 시작한 제5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는 그간 매주 700여 명의 목회자들이 경향각지에서 모여 한국 교회의 갱신과 목회자의 영적 성장을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었다.

또한 다음 주일에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나라 목회자들과 제 5차 킵치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온 32명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음을 위한 서로의 노력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나눌 것이다.

제 5 차

김치세미나 프로그램

5:30	5. 25.(수)	5. 26.(목)	5. 27.(금)	5. 28.(토)	5. 29.(일)	5. 30.(월)	5. 31.(화)	6.1.(수)	6.2.(목)	6.3.(금)
6:00	도착 및 등록	러시아복음화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 “러시아에 복음의 꽃을 피우소서”								
7:00		개인경건의 시간								
8:30		개회예배 이종운 목사	아침식사				기자회견	아침식사		
10:00			자유시간					자유시간		
		강의 I 언더우드 박사	강의 II 이종운 목사	강의 III 김상복 박사	교회학교탐방 (초, 중, 고등부)	강의 IV 이원설 박사	강의 V 전호진 박사	강의 VI 조종남 박사	강의 VII 이종운 목사	
10:50		휴식				휴식				
11:10		주일 예배				폐회예배 이종운 목사				
		토의	토의	토의	토의	토의	토의	토의		
12:00		점심시간								
13:00		오리엔테이션	시내관광	방문	산상기도회	교회학교탐방 (대학, 청년부)	목회자세미나 참관 (YMCA)	방문	방문	자유시간
17:00		비원, 남산 타워	연세대, 기독교방송국	양수리기도원	찬양예배	성서공회 방문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장로회 신학대학교	시장 방문	
18:00	저녁식사	환영만찬	저녁식사			만찬 (교계지도자 및 후원자와 함께)	송별만찬	저녁식사		
19:00	자유시간		개인 경건의 시간	자국 전도전략	개인 경건의 시간			평가회		
20:30										
21:00	그림기									

창세기 강해

언약의 무지개

(창세기 9장 8 ~ 17절)

이 중 윤 (목사·당회장)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사인(sign)'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사인이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만들어 놓은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할 때에 화살표 방향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은 인간끼리 지시서를 만들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사인은 상징(symbol)과는 다릅니다. 상징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가 붙어 있는 곳을 보면 교회라고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한 상징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 사인을 주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노아에게 처음으로 주신 언약은 그 대상이 모든 생물들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언약을 구체화시킨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말씀의 의미를 찾으면서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1. 자유의 사인

노아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언제 발하실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에 영적으로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은 창세기 6장과 8장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9:11)라는 오늘 본문은 그 언약들을 다시 확인시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정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피조물인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노아에게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듯이 우리가 죽음의 공포, 죄의 공포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위로의 사인

순례자의 길을 걸은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

함입니다.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길만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큰 외로움에 쌓이게 되는데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독이라는 병입니다. 오늘날 비인격적인 개인주의 풍토가 이 고독한 사회의 단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큰 위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동역자요 친구가 되시니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3. 용기의 사인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사십 년 간 자라던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할 때, 그의 앞에는 절망이라는 그림자 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드로의 집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지내던 사십 년 생활동안 그에게 별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좌절하고 막다른 벽에 부딪힐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은 이스라엘 출애굽의 대 역사를 일으키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절망할 수 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 심판을 받아 황량해져 버린 사방을 둘러보며 노아와 그의 가족은 감당하기 힘든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언약의 무지개는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신앙인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새 출발을 하는 사람입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용기를 얻어 힘찬 행보를 계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안식의 사인

이 시대에는 진정한 안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희락이 샘솟듯하여 지친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새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신앙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나의 표적을 포함한 모든 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지개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오묘하심과 영화로움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는 상관 없는 자가 되었고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된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넘치는 천국 희락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길잡이 ☆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듯 하라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인다면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치셨다.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아야 한다. 사람마다 단점이 있듯이 또한 좋은 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려면 그가 한 일보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 일이 실패했다고 하여 일꾼을 과소평가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자기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에게만 실행 필요하지 않은 인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인물일수도 있음을 알고 주님의 필요에서 그를 재인식하고 발견해야 한다.

무익한 지를 유용한 인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른 인간평가를 위해 힘을 다하여 기도하자.

■ 순례자캠페인 ■

“도브로 빠잘로 바찌!” (러시아어로 “환영합니다”라는 뜻)

제 5차 김치세미나가
박두했다.
「순례자」는
김치세미나의 진정한 목적을
잘 이루고
러시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위해
몇 주간에 걸쳐
다음의 글을 연재하고 있다.

1. 김치세미나의 열매
2. 러시아 정황
3. 제5차 김치세미나 기도제목
4. 제 5차 김치세미나 현장스케치

오는 25일부터 시작하는 세미나가
러시아 복음화의 불꽃이 되도록
은 교회가 기도도 동역하자
김치라는 이름이
의도하는 바를 알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찾으며
간단한 러시아 인사말을 익혀
러시아 형제들을 맞이하자

김치(KIMCHI) -

세계교회의 영적 입맛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교유의 음식 김치처럼 전 세계교회의 잃어버린 영적인 입맛을 돋우워주자는 의미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김치(KIMCHI)신학 세미나.

‘김치’라는 이름은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의 영어 첫 글자를 모아 만든 것이다.

1989년 제2차 세계로잔대회에 참석한 이종윤 목사는 당시 국제 총무였던 토마스 왕 박사와 세계복음화 비전을 나누던 중 「21세기 운동(AD 2000 & Beyond Movement)」을 창설하고 자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적 각성과 신학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1990년에 동구의 7개국 지도자를 초청하여 제1차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제2차는 1991년에 중국계 목회자들, 1992년도 제3차에는 인도와 스리랑카 등 힌두교권 목회자들, 그리고 제4차에는 아프리카 21개국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신학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러시아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제5차 신학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다. 김치세미나는 이와 같이 문화권별로 목회자를 초청하여 자국 복음화에 기여하도록 해왔다.

우리의 도전 - 세계 선교는 우리가!

타문화권 교회와의 협력과 교류 통해

공산주의와 무신론 세계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구 소련이 와해되면서 러시아 선교의 문도 활짝 열렸다. 그러나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도덕 등 모든 면에서 그 진로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지금의 러시아이며 민주주의를 향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격동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혼란과 불확실성, 공산주의에 대한 실망한 러시아인

들은 교회에서 희망을 찾으려 한다.

러시아에는 정교회와 복음주의 교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개신교 지도자들의 선교적 열정과 능력에 대한 바른 판단을 가져야 한다. 정교회가 대부분인 그들의 종교상황에서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는 그 시작부터가 수난의 연속이었다(정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를 이단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수난과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교회임에도 러시아 개신교는 영적인 생명력과 찬양이 살아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과 배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본다.

광활한 땅, 그래서 모든 곳을 가 보기란 거의 불가능한 나라. 그 땅 여기 저기에서 교회지도자들이 달려온다. 오랜 동안 폐쇄적인 사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관습이나 취향이나 습성이 우리와 다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자.

제 5차 김치세미나를 위한 기도 -

러시아에도 복음의 꽃을 피우소서!

1. 초청된 목회자들에게 진정한 영적 각성이 있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 러시아 형제들을 맞이하게 하소서.
3. 이번 김치세미나가 러시아 복음화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도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4. 강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모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강의가 바로 전달될 수 있게 하소서.
5. 서로 존중하며 피차에 많이 배우는 기간이 되게 하소서.
6. 러시아에 바른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7. 러시아에도 복음의 꽃을 피우소서.

성령강림 -

부활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증거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힘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

성령이 아니셨더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전달될 수 없었을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셨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일이 힘들었을 것이다. 성령의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되고 그 하나됨 안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천국을 확장해 가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셨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셨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위해서 오셨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러시아어로 인사합니다.

- 도브로 빠잘로바찌 세미나리 “김치” -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СЕМИНАРЬ “КИМЧИ”
(김치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환영합니다 - 도브로 빠잘로바찌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 처음뵙겠습니다 - 야 - 라드 비제찌 바스 Я рад видеть вас.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밤 파모 - 치 Вам помочь.
- 안녕하세요(아침인사) - 도브로예 우뜨러 Доброе утро.
- 안녕하세요(낮인사) - 도브로이 젠 Добрый день.
- 안녕하세요(저녁인사) - 도브로이 베체르 Добрый вечер.
-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발쇼예 스파시 - 빠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 죄송합니다 - 이즈비니 - 께 Извините.
- 예 - 다 Да.
- 아니오 - 네 - 프 Нет.

광야의
소리

내 자녀의 현주소

요한 웨슬레는 “나는 내 어머니의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성령이시며 나를 이토록 만든 것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시킨 나의 어머니이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아이들은 현재적인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미래만을 위하여 걱정하고 준비하고 있다. ‘내 아이가 다음에 무엇이 되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부를 누리고 세상의 인정을 받을까’만을 생각하며.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초의 교육 장소가 어머니의 무릎이라고 하지 않던가.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와 국가가 바로선다고 한다. 우리의 아이들은 차세대에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교회와 국가를 주도해 나갈 장본인이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앞으로가 아닌 바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 지난 18일, 베드로 1남선교회원과 루디아 1여전도회원들이 강원도 마천중앙교회를 방문하여 축호전도와 노방전도, 그리고 약사, 내과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의 무료 의료 진료와 각종 봉사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



5월 30일 목회자세미나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고난의 역사와 한국의 미래」 - 김상철 변호사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러시아에도 복음의 꽃이 피게 하소서
2. 우리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이 조화롭게 운영되게 하소서
3.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4.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목회자의 영적 각성과 한국교회의 갱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부터 별관 1층 사용

- 교회학교 장소 사용 일부 변경 -

오늘부터 별관1층을 유치부와 대학부가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무국이 기존의 유치부실로 이전하였고 401호와 402호를 통합하여 오전에는 초등부가, 오후에는 청년부가 사용키로 하는 등 사용 장소가 일부 변경된다. 3층 청년부실과 탁아부실은 통합하여 찬양II실로 사용하며, 탁아부실은 2층에 칸막이 공사를 하여 새로이 자리하게 되며 기존 사무국 자리는 홍보실과 부속실로 사용케 된다.



↑ 지난 16일과 17일에 한국 초기 교회의 산 증인인 안이숙 여사를 모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으로 일관한 그의 간증을 들으며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지난 19일(목) 탁아부에서는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작도 하면서 즐거운 잔치를 벌였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